



인하대, 교육외교 공로로 '외교부장관' 표창

인하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인재양성·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오른쪽)과 전태준 국제화사업 단장이 외교부장관 표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한국남동발전, 준법·윤리경영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남동발전이 투명·윤리경영을 앞세운 전사적 준법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월 30일 한국준법진흥원(KCI)이 주관한 '2025 Compliance & Ethics Leaders Awards'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남동발전



BBQ 이끌 신입사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채 37기 신입사원 사령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류전형과 AI 역량검사, 실무 면접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경쟁률은 50대 1을 넘었다. /제너시스BBQ



용마로지스, '국제산림관리협 연계관리 인증' 획득

국내 종합 물류 기업 용마로지스가 지난 2일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의 연계관리(Co C)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한국품질재단이 주관한 'FSC CoC 인증서 수여식'에서 송지영 한국품질재단 대표(왼쪽)와 박원순 용마로지스 경영지원실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교원그룹, 상하이서 40주년 '교원 감사 나눔 투어'

교원그룹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교원 감사 나눔 투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하이브리드의 힘… 현대차 '팰리세이드' 판매 신기록

지난해 전 세계 21만 대 팔려
전년비 판매대수 27.4% ↑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란 분석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도매 판매(IR) 기준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대수는 21만 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



현대차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

은 판매고를 올렸다. 2024년 16만 5745대와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전 세계 수출대수는 연간 10만 대를 넘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본격적인 수출이 지

난해 5월 북미 시장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7만 3574대를 판매한 가솔린 모델에 하이브리드 모델(2만 8034대)까지 더해지면서 총 10만 1608대를 판매했다.

미국에선 4개월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1만 대 가까이 판매됐다. 전통

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팰리세이드가 주요 선택지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미국에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선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가솔린 모델을 앞섰다. 지난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판매대수는 3만 8112대로 가솔린 2만 1394대 대비 1만 7000대 가까이 더 많았다.

시장에선 현대차가 신형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판매 증가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형 SUV의 넉넉한 실내 공간성에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도입해 상품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U+, 보이스피싱 음성 제보 받는다

경찰청 캠페인 동참

LG유플러스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보이스 원티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수집해 성문 분석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피해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는 대국민 제보 캠페인이다. 국민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녹음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앱 '유플러스원(U+one)'의 플러스 메뉴를 통해 캠페인 내용과 제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AI 무료 통화 앱 '의시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설정 없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돼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음성 데이터

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 고도화에 활용되며, 향후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잡았다 목소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헤드폰, 조명 램프, 공예 소품, 모바일 간편결제 포인트 등 경품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협업을 확대하고, AI 통화 앱을 통해 확보된 보이스피싱 의심 음성 데이터 공유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고객 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 앱 제어 서비스를 주제로 분석하고, 악성 앱 설치흔적이 확인된 고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소업계, 4만명분 명절 먹거리 기부

전국 300여 곳 복지시설에 전달

중소기업계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300여 곳 복지시설에 4만 명분의 먹거리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설과 추석에 명절음식키트를 만들어 전국 복지시설에 지원하며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 떡만둣국 키트는 1박스에 40인분으로 쌀 20kg과 소고기 3kg, 떡국떡 9kg, 만두 2.6kg과 코인육수로 구성했다.

또한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6 설맞이 명절음식키트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박성곤 응답생드림인센티브, 박소현 우리마포복지관장, 김기문 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치 3000kg을 함께 지원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마트, 최강록 협업 요리 리뉴얼

선착순 고객에게 포토카드 증정

롯데마트가 이달 5일 최강록 세프와 협업한 조림 요리 '나야, 돈데키'를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나야, 돈데키'는 돼지고기 목심과 특제 간장 조림 소스로 구성된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은 '조림의 대가'로 불리는 최강록 세프의 조리 철학을 반영해 고기에 칼집을 넣어 양념이 깊게 배도록 개선해 풍미를 롯데마트, 최강록 협업 '나야, 돈데키' 리뉴얼해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신상품을 기념해 팬덤을 겨냥한 이색 마케팅도 펼친다. 롯데마트는 이달 11일까지 해당 상품을 포함한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6종을 구매한 고객에게 포토카드 증정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부 음

▲조영욱 씨 별세, 조대근(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장)·윤아 씨 부친상, 김민정 씨 시부상, 김순성 씨 장인상 = 2일 오후 12시 43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광주영락공원. (062)521-

미래 인재 발굴 지원

우리은행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1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나눔기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관에서 개최된 기금 전달식에는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왼쪽부터),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오상록 KIST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왼쪽부터),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오상록 KI

ST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키스트미래재단은 KIST의 설립 취지를 계승해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연구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파트너십을 지속 중으로, 이번 기탁은 오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을 한층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4444.

▲김영수 씨 별세, 김태호(자영업)·김태훈(한국투자증권 인사부장)·김기랑(미래에셋증권 수석) 씨 부친상 = 2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장례식장, 발인 4일, 055-249-1700.